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 26일~5월 9일

스위스·대만 현대미술, 광주서 만난다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2018년부터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과 해외의 미술 기관 간 네트워크를 연결·확장시키기 위해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광주비엔날레 전시와 독립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기획이다. 광주에서 전시를 연 각국의 미술기관들은 광주를 둘러보며 전시공간을 선정했고, 세계 각국의 현대미술 현장은 자연스럽게 광주를 집결했다. 더불어 광주를 비롯한 한국 작가들을 해외 무대에 알리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문화기관이 전시를 연 데 이어 올해는 스위스 쿤스트하우스 파스파르트와 대만 동시대문화실험장이 참여해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전시는 오는 4월1일로 연기된 제13회 광주비엔날레 행사와 관계 없이 예정대로 26일부터 5월9일까지 펼쳐진다.

#스위스-얼른투게더

미술관으로 들어서면 노트북과 휴대폰을 들고 있는 여성무용수 4명의 느릿한 몸짓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은 60분 동안 백색 알루미늄 구조물이 놓인 전시장 이곳 저곳을 걷고, 때론 높고, 앉는 다양한 자세와 포즈를 통해 이야기를 전한다. 서로가 서로를 촬영하며 따르지만 또 서로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관객들도 무용수들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며 작품 속으로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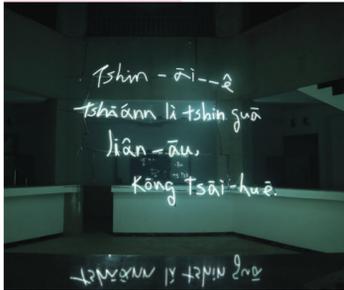
스위스 쿤스트하우스 파스파르트와 광주의 은암미술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얼른 투게더(Alone Together)'는 스위스 안무가 안나 안데렉을 중심으로 무용수, 건축가, 작곡가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퍼포먼스와 설치미술, 영상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얼른 투게더'는 네 명의 여성이 디지털 연결로 이루어지는 온라인상의 감정입, 관심, 고립, 부재 등으로 고심하는 모습을 서사를 통해 풀어낸다. 기술, 소비시장주의, 셀레브리티 문화를 포함한 퍼포먼스와 영상으로 구성된 작품을 통해 도시환경에서의 사람들의 삶의 공간에 주목한다.

특히 인데렉은 팬데믹 시대 '비대면'의 시대적 변화를 감각적으로 표현해 우리가 체감하고 있

스위스 '얼른투게더' 은암미술관 디지털 시대 변화된 삶의 공간 설치미술·퍼포먼스·영상으로 퍼포먼스 3월3일까지 예약 관람

대만 '한쌍의 메아리' 아시아문화전당 대만·한국 민주주의 현대사 탐구 양국 8개 그룹, 14명 작가 참여



왕딩에 작 '나의 소중한 사랑...'

는 실제 신체적 거리와 디지털시대의 변화에 따른 신체적 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삶의 공간은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다.

2층에서는 영상물을 만날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김사라 건축가가 공간의 건축학적 요소, 미디어 아티스트 마르코 바르티가 사운드 디자인을, 패션 디자이너 안토니아 이바노비치가 의상 디자인을 담당했다.

라이브 퍼포먼스는 26일부터 3월 3일(28일 제외)까지 1시간 단위로 다섯 번 연속 중단 없이 이어지며 관객은 원하는 시간만큼 관람할 수 있다. 관람을 원하는 사람은 은암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후 전시기간 동안에는 퍼포먼스를 기록한 영상과 박수환 감독의 영



광주비엔날레 스위스 파빌리온 프로젝트 '얼른 투게더' 퍼포먼스가 25일 은암미술관에서 열렸다.

화가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대만 '한쌍의 메아리'

대만 동시대문화실험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 5관에서 '한 쌍의 메아리'를 선보인다. 대만국가인권박물관 타이페이공연예술센터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만 파빌리온은 대만과 한국 속 민주주의의 발전, 인권 추구, 자유, 등 보편적 가치를 탐구한다.

8개 그룹, 총 14명 대만과 한국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식민지, 독재정권을 거쳐 유사한 형태로 민주주의 길에 들어선 두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과 한국의 현대사를 조명한다. 또 튀디오인

관예술축제에서 잔잔한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들이 대만동시대문화실험장과 대만국가인권박물관의 협력을 통해 다시 제작돼 이번 전시에서 재조명된다.

작가들은 대만과 한국 등 현대 아시아에서 일어난 비서한 사건들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한편 제13회 광주비엔날레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은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39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함께 국립광주박물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광주극장 등지에서 개최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남도 매화나무 이야기

남도문화마루 '남도 매화를 찾아서'

'탐매(探梅) 여행'은 봄을 맞는 가장 행복한 여정이다. 나들이 길에 쟁겨갈 동반자 같은 책이 나왔다. 혹은 여행에 나서지 못하더라도, 사진과 글로 만나는 매화이야기만으로도 은은한 향기가 풍기는 책이다.

호남 5매를 비롯해 남도의 대표적인 매화나무에 담긴 이야기를 수록한 '남도 매화를 찾아서'가 출간됐다. (사)대동문화재단과 (사)남도문화마루가 함께 만든 책이다.

호남 5매는 장성 백양사 고불매, 담양 지실 계당매, 광주 전남대 대명매, 고흥 소록도 수양매, 순천 선암사 선암매다. 소록도 수양매는 고사했다.

선암매는 순천 선암사 경내에 있는 수령이 350~650년인 매화나무 50여 그루를 지칭한다. 이 매화군락 중 흰매화 한 그루와 분홍매화 한 그루가 천연기념물 제488호로 지정돼 있다.

전남대 대명매는 대강당 앞 매화나무 군락이다. 이 매화는 농과대학 제3대 학장이었던 고재천 박사의 제11대 조인 고부천 선생이 1621년 명나라 북경에 갔을 때 희종 황제로부터 증정받은 흥매 한 분에서 출발한다. 담양 창평 유촌리로 옮겨져 대명매로 이름붙여진 이 매화는 이후 농과대학에 기증됐고, 1976년 현재의 자리로 이식했다.

책에는 순천 금둔사 남월홍매, 담양 소재매, 강진 월남매, 나주 죽산면 죽산매, 구례 매천매, 영암 왕인매, 창평 장전매, 담양 지실 와룡매, 화순 죽수매, 장성 고산매 등과 매화시, 목매화 등 시·서·화로 사랑받은 매화 인문학 이야기를 담았다.

매화 사진은 리일천 작가가 촬영했다. 2년 간에 걸쳐 매화가 피는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38곳의 탐매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왕가위 특별전

3월 3일까지 CGV·광주극장

1980~90년대 홍콩 영화 뉴웨이브를 이끌었던 왕가위 감독. 독특하고 환상적인 미장센, 감각적인 영상 미학과 메시지로 독보적인 영화 세계를 구축해 큰 사랑을 받았던 왕가위 감독의 작품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CGV와 광주극장이 왕가위 감독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CGV는 지난 11일부터 'All About Wong Karwai: 왕가위 특별전 시즌 2'를 진행중이다.

오는 3월 3일까지 이어지는 특별전에서는 그가 연출한 작품 11편을 모아 선보인다.

라인업은 '열혈남아(1988)', '아비정전(1990)', '중경삼림(1994)', '타락천사(1995)', '해피 투게더(1997)', '부에노스 아이레스 제로 디그리(1999)', '화양연화(2000)', '2046(2004)', '에로스: 왕가위 감독 특별판(2004)', '동사서독 리릭스(2008)', '일대중사(2013)' 등이다.

광주에서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제로 디그리'와 '에로스: 왕가위 감독 특별판'을 제외한 모든 영화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영화 '중경삼림', '타락천사', '해피 투게더', '화양연화', '2046' 5편은 4K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통해 향상된 버전으로 상영돼 관객들은 선명한 화질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CGV는 관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먼저, 영화 티켓과 배지, 스틸 엽서 3종 세트로 구성된 '해피투게더' 더 스페셜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으며, '중경삼림' 관람객 전원에게는 스페셜 포스터(A3)를 소진 시까지 증정한다.

아트하우스 클럽 아티스트 등급 고객이라면 스페셜 포스터를 받을 수 있다.

광주극장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제로 디그리'와 '중경삼림', '타락천사'를 특별상영한다.

26일부터 3월3일까지 4차례 상영하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제로 디그리'는 영화 '해피 투게더'의 또 다른 이야기다. 낯선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방인이 되어 영화를 찍는 동안 겪은 우여곡절을 담은 영화다. 생각처럼 풀

리지 않는 촬영과 자꾸만 미루어지는 일정, 스텝과 배우들의 고뇌 등 영화에서 담지 않은 뒷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두 개의 독특한 로맨스로 왕가위 감독의 신드롬을 일으킨 '중경삼림'은 3월4일 개봉하며,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던 여명과 금성무, 그리고 이기훈 주연의 '타락천사'는 3월11일부터 17일까지 4회 스크린에 오른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아비정전



중경삼림



소설가 최은영

광주트라우마센터는 '치유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올해도 운영한다.

첫 강연은 지난 24일 광주가톨릭대학교에서 진행됐으며, 노은주, 임형남 건축가 '집을 위한 인문학'을 주제로 강연했다.

3월에는 이대훈 성공회대 겸임교수가 '가르침 없는 평화교육과 평화역량'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최은영 소설가는 4월 '소설 읽기를 통해 자기 감정 이해하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흥은전 인권·동물권 기록활동가는 '과거의 나로부터 떠난다는 것' (5월)을 주제로 강연하며, 김안석 아주대 교수는 '명상에 대한 오해와 이해' (6월)를 준비했다.

이밖에 임선애 영화감독의 '영화로 목격하고 감각하기' (8월), 김하나 작가의 '말하기를 말하기' (9월), 이철승 서강대 교수의 '불평등의 세대' (10월), 양지혜 활동가의 '청소년 섹슈얼리티' (11월) 등이 차례로 열린다.

현장 참여는 50명 이내이며, 사전 접수를 받아 선정한다. 강연은 광주트라우마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601-1974. /전은재 기자 ej6621@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